

관민 제휴의 지역활성화

도시는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화하는 도쿄에 완성은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여러가지 개발과 계획을 관과 민이 일치되어 진행합니다.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내에서는 도쿄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부야 역 주변의 개량공사와 역 앞 광장의 정비, 재개발 등을 동시에 진행, 환승 경로의 복잡함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관과 민의 제휴로 조직된 협의회가 작성한 가이드 라인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진행중입니다.



환상 2호선의 신바시·도라노몬 구간은 오랜 기간, 사업 진행이 묶여있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에 창설된 입체도로제도 (도로상공의 건축이 가능해짐)에 의해 지역 주민의 협력하에 도로 사업이나 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쿄도가 시행자가 되어 민간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부지내에 건물을 집약화, 국제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다양한 기능은 물론 오픈 스페이스 등을 창출하는 「도라노몬 힐즈」가 탄생 되었습니다.



①히비야 공원 마루노우치 본오도리 ②공릉 빌리지 in어번 독 라라 포토 도쿄스 ③폰기힐즈 10주년 기념 이벤트



지역 매니지먼트에 의한 매력적인 거리 만들기

도내 각지에서 지역권자들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환경과 지역의 가치를 유지하며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 움직임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공개공간등을 활용한 오픈 카페의 설치, 이벤트의 개최 등이 눈길을 끄니다. 도쿄도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거리의 매력을 높이는 단체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COMMENT >> MIKI YASUI

야스이 미키 호세 대학 현대복지학부 교수

국내외에서 지역 매니지먼트 연구. 최근에는 정부·지자체의 위원이나 지역활성화 단체의 자문위원으로서 제언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사(공학)

각 거리 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지역 매니지먼트의 시도

도시는 이제 규모나 기능만이 아니라 각각의 거리만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편리함, 안심·안전 등 폭넓은 매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거리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비전이 지역권자나 사업자, 주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성, 행정과 함께 실현되는 「지역 매니지먼트」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도쿄에는 그 선두적 역할을 하는 거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매력의 옷을 입혀, 오피스가에서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거리로 진화한 다이마루유 지역, 재개발 당시 주변의 학생들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킨 간다아와치초 「와테라스」, 민간 재개발과 구립 공원이 함께하여 매력을 높인 도쿄 미드타운 등. 특히 공공적인 공간을 유효하게 사용, 거리가 새로운 활동이나 교류의 장소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공적인 공간창출, 매력 만들기예 역점을 둔 도쿄 지역 매니지먼트 사업은 아시아를 비롯 세계 각국의 주목을 끌며 앞으로도 공(公)과 민(民)의 제휴와 조직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④간다·와테라스: 지역과의 교류를 컨셉으로 초등학교 철거지를 포함한 부지가 재개발 되었습니다. ⑤도쿄 미드타운: 인접한 공원과 광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